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금융위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1건 등 의결 -

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1건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2건)	하나카드	해외여행시 결제 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 제공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카카오페이	휴대폰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지정내용 변경 (1건)	카사코리아 외 4개 신탁회사*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공모 서비스

*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금융위원회는 하나카드에 대하여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송금(양도)을 허용하고 발행권면 최고한도(충전한도)를 상향(200만원 → 300만원)하였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 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BNPL)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의 변경**을 허용하였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23.9.14일 개정, '24.9.15일 시행)되었으며,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

** 기존 사업구조 외 카사코리아(자회사 포함)가 직접 신탁 대상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신탁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추가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석란 (02-2100-2530)
		담당자	서기관	김보균 (02-2100-2841)
			사무관	김예빈 (02-2100-2859)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상록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최승희 (02-2100-2621)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임형준 (02-2100-1690)
			사무관	이송이 (02-2100-1691)
<공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정종현 (02-2100-2654)
<공동>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60)
		담당자	사무관	신용진 (02-2100-2663)
<공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정여진 (044-215-4750)
		담당자	사무관	안근옥 (044-215-4752)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책임자	국 장	곽범준 (02-3145-7160)
		담당자	팀 장	심은섭 (02-3145-7162)
<공동>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	책임자	국 장	백규정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최범전 (02-3145-7135)
<공동>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안신원 (02-3145-8040)
<공동>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책임자	국 장	임권순 (02-3145-6700)
		담당자	팀 장	황준웅 (02-3145-6540)
<공동>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책임자	국 장	임종건 (02-3145-7920)
		담당자	팀 장	이민규 (02-3145-7922)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건)**① 해외여행시 결제 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하나카드)****[서비스 주요내용]**

실명 예금계좌를 등록한 외화 하나머니* 서비스 이용자가 하나카드에 원화를 지급하고 외화 하나머니를 충전한 후, 다른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에게 송금(양도)하거나(‘선물하기’), 300만원까지 외화 하나머니를 보유(‘한도 증액’)하면서 이를 해외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금융실명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으로 발급되는 예금 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특례내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외화 하나머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를 송금(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화 하나머니의 보유 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하여 해외 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거주자 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주고 받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은 편리성을 누리는 동시에 불필요한 환전수수료 등을 절감하게 되며, 외화 환전 시장 및 해외 결제 시장에서는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자가 해외여행시 고액 거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한 번의 충전으로 편리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예) 여행을 앞둔 가족·지인에게 외화 하나머니 선물, 해외여행 경비를 실시간으로 1/N 정산 등

[주요 부가조건]

하나카드는 이용자가 매수하는 외화 선불충전금의 100%에 해당하는 외화를 구매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예치하는 등 외화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고 환위험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거주자의 거주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거주자 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실적을 외환전산망에 월별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여행 편의성 제고라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목적과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의 본래 업무범위(재화 및 용역의 구입 대가)를 고려하여 거주자 간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향된 보유한도(100만원)는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기간에 한해 적용하고 해외 가맹점에서의 결제에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 양도인 기준 거주자 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는 1회 1천불 이내, 1일 5천불 이내, 연간 1만불 이내로 한정

[향후 일정]

'24년 2분기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②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한 장기자금 조달수단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커버드본드의 원리금을 지급보증 함으로써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❶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과 ❷ 발행기관(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높여 발행하는 채권

[특례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및 제34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업무에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회사가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편, 커버드본드를 기반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공급이 확대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채무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 발행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를 공사가 운영하는 적정 지급보증배수('24년 38.6배) 내에서, 국내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만을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본드에 한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중 지급보증 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 소관부서에 보고 하고, 매분기말 커버드본드 보증 현황도 정례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향후 일정]

'24년 2분기중 서비스 이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 휴대폰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카카오페이)

[서비스 개요] ('21.5.26. 지정, '22.5.25. 연장)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교통수단* 이용 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액 (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입니다.

*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톨게이트(하이패스) 및 주차장에서 이용 가능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가 ①이용자별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③동 서비스가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규제개선 요청 수용]

카카오페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며, '23.9.14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24.9.15일 시행 예정)되어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경영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으나, 향후 세부 내용*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규율할 예정임에 따라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예: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규제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며, 개편이 완료되어 인·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카카오페이는 동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공모 서비스**
(카사코리아,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기존 지정내용] ('19.12.18. 지정, '21.12.8. 연장, '23.12.13. 규제개선 요청 수용)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공모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 제373조, 제11조에 따른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거래소 허가, 투자중개업 인가 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왔습니다.

[지정내용 변경]

현재 카사코리아는 투자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부동산 처분(매각)을 권유하고, 신탁회사로 하여금 소유주로부터 수탁받은 부동산을 기초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게 한 뒤, 이 수익증권들을 공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증권 공모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 여부가 결정되는 등 현행 사업구조로는 적절한 부동산 물건 확보가 곤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영위가 어려워짐에 따라, 카사코리아(자회사 포함)는 직접 신탁 대상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도 병행해서 취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카사코리아가 현행 사업구조를 유지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선매입시 가격협상력이 제고되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구조를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